



## 잔소리



잔소리가 뭔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고는 적잖게 놀랐다. 잔소리의 사전적 의미가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이었기 때문이다. 이 뜻을 진작에 알았다면 조금은 더 애를 써서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어릴 때 엄마의 잔소리를 정말 싫어했었다.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구구절절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청소해라" "공부해라" "늦지 않게 가라" 정도인데 이 말을 하기까지 "방이 또 왜 이 모양이 풀어나... 방 치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나 백번도 넘게 말하지 않았나 그럼 이제 알아들을 만도 한데 왜 맨날 똑같은 소리를 입 아프게 해야 되나 너는 진짜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냐" 마치 프리스타일 레퍼처럼 속사포로 쏟아붓는 엄마의 잔소리는 그냥 듣기 싫은 소리 그 자체였다.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고는 달라졌을까? 아니! 가끔은 소름이 끼쳤다. 내가 엄마가 되고 나자 레퍼토리마저 똑같이 엄마가 하던 그 듣기 싫은 잔소리 랩을 그대로 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며칠 전 가슴에 섬유선종을 도려내는 mammoth 수술을 하고 (쉽게 말해 물혹을 제거한 거임) 다음날 아침이었다. 남편은 나에게 더 누워있으라고 했지만 내가 안 하면 집안일이 사라지기라도 하나? 우렁각시가 대신 해주기라도 한다면 당연히 꼼짝도 안 하고 싶지만 결국 언젠가 내가 할 일을 미뤄 봤자 일만 더 많아지

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힘든 몸을 일으켜 움직였다. 그런데 내 몸이 불편하니 모든 것이 다 불편하게 보이네? 결국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출근이 늦었던 남편은 한숨을 쫓 쉬더니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다.

아이 셋도 모두 등교를 하고 엉망이 된 착잡한 마음으로 설거지, 청소, 빨래를 마치고 이제 좀 누울까 하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딸이 교과서를 안 갖고 왔다고 정문에 맡겨달라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이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꽤나 공들여 설명하는 문자였지만 문자 그 어디에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그래도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고 응원의 메시지와 하트까지 그려 넣은 교과서를 잘 전달하고 왔더니 잠시 후 딸로부터 고맙다는 문자가 왔다.

이제 잠깐 쉬어볼까 하려는데 우리 집 남매 고양이 중 수컷이 평소와 달리 사방팔방 뛰어다니더니 그만 사료 그릇을 깨트리고 말았다. 유리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서 치우는데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 다행이다 생각하며 바닥을 쓸고 닦고를 반복하였다. '허구한 날 식구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이놈의 팔자' 하면서 눈물과 한숨을 흠뻑내니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다.

사실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조언"이었을 것이다. 조언의 사전적 의미는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 또는 그 말"인데 바로 딱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분명 나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고 싶었

던 것이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로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매번 내 진심과 상관없이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떠들고 꾸짖게 되는 것일까? 왜 나는 진정한 조언이 아닌 쓸데없는 잔소리를 퍼붓게 되는 것일까?

잔소리를 피하는 3대 법칙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구구절절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기, 둘째는 요구사항만 짧게 전달하기, 그리고 마지막은 말이 끝나면 보태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결국은 할 말만 짧게 하란 소리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아이와의 불필요한 언쟁은 피하고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소리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위에 세 가지만 지키면 간단히 해결될 것만 같지만 글썽... 어쩐지 자신은 없다. 심지어 세계 어디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잔소리가 공통적인 것을 보면 이걸 거스르려야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여성 고유의 성향과 엄마가 갖고 있는 모성과 책임감이 만나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잔소리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닐까? 엄마 노릇이라는 게 참 그렇다. 힘들고 외롭고 참 고되다. 흐흐.....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pay when close escrow)

(\* for regular commission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 시니어 스페셜 \*\*\***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